

현대 한국이슬람선교의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

2012년 “Islam Partnership 2차 Consultation”을 중심으로

권지윤 *

1. 들어가면서

현대의 이슬람은 글로벌테러리즘, 이슬라모포비아의 확산과 오해, 비 이슬람국가에서의 무슬림 인종차별, 흔들리는 무슬림들의 정체성, 무슬림 폭동과 종교적 근본주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얼룩진 종교라는 이미지를 안고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의 신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종주국이었던 유럽과 미국에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거대한 종교 공동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¹ 한국도 이러한 무슬림인구 성장에 예외가 아니어서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10여년간 약 30% 무슬림인구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무슬림인구는 약 15-16만정도로 추정되고 있다.² 한국기독교 인구의 성장률이 지난 200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무슬림인구의 성장률은 약 1.7%인데, 기독교 성장률은 약 1.3%에 지나고 있어 이미, 무슬림인구의 성장이 기독교인구의 성장률을 앞선

*햇볼트리니티 한국이슬람 연구소 책임연구원

1. John L. Esposito, *The Future of Islam*,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5

2. 권지윤, “The Understanding of Korean Muslim women” *Muslim Christian Encounter*, Vol.5 No 1, (2012. 8.)

상태이다.³ 이러한 성장률은 역으로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의 선교적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은 ‘9/11’ 사건이후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 앞서서 1990년대 이후 무슬림인구의 국내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으며, 이슬람국가에서 한국인이 급진 이슬람 단체에 의해 납치와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크림연구원의 문상철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선교사는 2011년 말 약 19,373명에 이르며, 약168개의 단체에서 177개국에 파송하였으며, 이슬람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약 23.2%에 이른다고 하였다. 기독교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24.2%)를 제외하면 이슬람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⁴

사실 최근의 이러한 통계는 한국기독교의 이슬람선교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이슬람선교는 오래전부터 소수의 선교사가 이슬람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면서 시작된 것⁵으로 그 역사가 서양에 비해서 짧다 하여도 지속적으로 무슬림을 향한 선교를 진행해왔으며, 규모에 비해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내 무슬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슬람포비아의 확산으로 이슬람선교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기독교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스트적인 논의들은 이슬람선교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무슬림전도에 있어 편협한 시각을 양성하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오래된 편견과 오해를 강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기에 기독교의 이슬람선교에 결코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현대

3. "Status of Global Mission, 2012, in the context of AD 1800-2025", in *International Bulletin Missionary Research*, Vol. 36, No. 1, (2012 January), 29.

4. Steve Sang-Cheol Moon "Missions from Korea 2012: Slowdown and Maturation" <http://krim.org/files/Missions%20from%20Korea%202012.pdf> (accessed to 2012-10-11).

5. 전재욱 교수는 1961년 이화여대에서 파키스탄으로 파송된 첫 한국인 여성선교사였다.

한국이슬람선교는, 이슬람 선교를 위한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성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이슬람 선교사, 전문가, 지교회 대표들의 요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서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이슬 파트너십’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슬람파트너십 2차 Consultation’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슬람파트너십’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해 보며, 2차 Consultation을 통해 한국의 이슬람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이슬람파트너십’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이슬람파트너십’ 이라 하면 무슬림단체들의 연맹이라던지,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이들이 이끄는 기관들의 회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슬람파트너십’은 한국 기독교 안에 형성된 이슬람을 향한 선교 그룹간의 건강하고 전문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전문성과 전략을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이다. 이슬람선교의 전문성과 전략을 위해 모인 개인과 단체들이 연합하고, 예배와 교제를 가지며,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연구와 출판, 동원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은 크게는 기독교의 무슬림 선교를 위함이며, 좁게는 무슬림 가운데 교회개혁과 선교를 위한 창의적 전략 개발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이슬람파트너십’은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내 이슬람 사역과 연관된 단체, 교단 개인, 두 번째로 이슬람권 한국 선교사들, 세 번째로 세계 이슬람권 선교단체 및 지도자들 현지 CBB, MBB⁶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활동,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이슬람파트너십’은 2010년 아래와 같은 Vision statement, 와 Core Values를 발표하였다.

6. CBB : Christian Background Believer, 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

- 아래 -

Vision statement

예수의 사랑으로, 화해와 연합을 통해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Core Values

1. 예배와 기도
2. 연합과 화해
3. 고난과 십자가
4. 전문성과 다양성

2010년 Vision statement와 Core Value의 발표가 있었던 것은 이 연합이 2010년 11월에 17개 국내외 이슬람관련 기독교 선교단체와 이 들 단체 중에 대표적으로 6명의 실행위원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모임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슬람 선교단체들의 연합과 해체는 한국이 이슬람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며, 최근에도, 기독교 무슬림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과 논의들이 많은 가운데, 그 방향성을 함께 하는 단체별로 소극적 모임들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슬람파트너십’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슬람선교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한국의 이슬람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파트너십’은 변화하는 세계 선교 속에서 오늘날 한국의 이슬람권 선교가 해야 하는 역할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공유하고, 전략을 모색하며, 이슬람권 선교를 향한 열정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모임이 1,2차 IP 컨설팅이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3. IP 2차 컨설팅이션의 구성과 내용

2010년 11월 26일 출발한 IP는 2011년에 부산 엘레브 수양관에서 제1차 컨설팅이션을 가졌다. 약 40여명의 국내외 이슬람권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참여하여 ‘이슬람의 글로벌 트렌드, 이슬람권 필드이슈, 한국교회의 무슬림에 관련된 문제와 현실’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를 마친 후 한국기독교의 이슬람권 선교에 대하여 IP를 통한 10년의 Rode Map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각 단체와 기구별로 분담하고 확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제1차 컨설팅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2012년 11월 제2차 컨설팅이션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가졌다. 이번 IP 2차 컨설팅이션에는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 그리고 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다.

2차 컨설팅이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한국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기’ 즉 한국기독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이슬람에 대하여 편협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혐오와 거짓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이슬람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한다. 두 번째는 ‘무슬림권 현지 선교사들 섬기기’ 다시 말하자면, 무슬림을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일, 이와 더불어 무슬림가운데 제자 양육하는 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Session에서 주로 다루어졌는데, ‘한국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기(이슬람의 이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IP에서는 한국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것들을 그 빈도수와 중요성을 바탕으로 10가지의 예상 질문을 선택하였다. 2차 컨설팅이션에 모여 있는 이슬람 선교사, 연구자, 교회대표들을 총 10조로 나누어서 선택된 10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주제는 어떻게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또는 무슬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모여진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된 대답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독교인에게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무슬림에게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선택된 10가지 질문은 흔히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일반적인 이슈들이긴 하나 선교 신학적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이었기에 이 질문들을 공식화하여 이슬람 선교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질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2차 컨설팅이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들은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의된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이글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질문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기에 이

글을 읽는 이들이 공감하고, 도전받으며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질문을 소개하려고 한다.

1. 이슬람의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가.
2.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인가.
3. 무슬림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가? 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그들 구원관은 고려하여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는가.
4.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5. 무슬림들은 왜 이슬람에 헌신적이며, 이슬람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6. 이슬람의 얼굴은 하나인가, 다양한가, 얼마나 다양한가.
7. 이슬람은 폭력적이라 알려졌는데 이는 정당한 평가인가.
8. 이슬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9.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는 무엇인가.
10. 다문화 가치가 많아지면서 국내의 무슬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총 4개의 Session 중 첫 번째 Session을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 Session까지는 무슬림 현지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무슬림 전도와 제자양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네 번째 Session은 특별한 발제보다는 앞선 Session의 논의의 연속된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무슬림 제자양육과 전도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선교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Session은 이슬람권에서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사역한 선교사가 그간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무슬림전도와 제자양육에 대한 발제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터키지역과 카자흐지역의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이번 발제는 *From seed to fruit*⁷⁾의 책 내용 중 일부에 대한 Reflection paper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터키선교사의 경우 이

7. Dudley J. Woodberry ed., *From Seed to Fruit* (William Carey Library: Pasadena, 2010)

책 9장 “The Sowing of Witnessing”, 카자흐스탄 발제 때는 이 책의 10장 “The watering of discipling”의 내용에 대한 Reflection paper였다.

두 번째 Session 은 ‘씨뿌리기’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슬림전도에 대해서 발제가 있었다. 발제자는 구소련의 아제르바이잔에서 1990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현재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 남성 선교사였다.⁸ 그는 *From seed to fruit*, 9장에서 제시한 9가지의 열매 맺기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오랜 시간 선교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들과 발제자만의 독특한 6단계의 과정 전도법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슬람권에서의 사역은 많은 환경적 장애들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 외부적 장애보다 사역자 자신이 더 큰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씨뿌리는데 있어서 우선 선교자 자신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발제자는 씨뿌리기 즉 복음의 전도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과정을 제시하였다. 1. 찾아가서 씨뿌리기, 2. 성령사역으로 씨뿌리기, 3. 단기사역자와의 접촉과 씨뿌리기, 4. 일대일로 씨뿌리기, 5. 현지인과 씨뿌리기, 6. 소수민족과 씨뿌리기(예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는 무슬림과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되고, 발전된 관계는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Session 2와 관련하여 *From seed to fruit* 9장 “The Sowing of Witnessing”에서는 씨뿌리기-열매 맺는 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9가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 공동체 혹은 교회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다리로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가족, 이웃, 공동체 집단들)
2.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메시지를 소통하도록 노력하라, 세계관 이슈가 드러나는 영적인 굴주림을 유발하는 성경을 사용하라
(땅갈기 씨뿌리기, 자라게하기, 열매맺기.....지역적 상황을 나눈다)
3. 종족의 모국어로 복음을 소통하도록 하라
4. 복장, 언어, 관습들, 현대 등등 문화적으로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8. 구체적인 선교사의 실명은 이 글에서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다.

현대문화에 대한 이해, 상황화문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문화적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5.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라
6. 있는 곳에서 친구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찾아라
7. 무슬림배경 신자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도록 격려하라
8. 재생산이 가능한 전도도구와 방법이 무엇이나.
9.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라

Session 2 발제가 마쳐진 후 IP 참가자들은 모두 8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위에서 제시한 9가지 열매 맺는 사역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방법론을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이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3, ‘종족의 모국어로 복음을 소통하라’의 경우 모국어가 아닌 언어가 공용어라 할지라도 소통이 불완전하며, 선교지가 이중언어 사용지역일 경우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 언어의 깊이는 정서를 터치하고, 넓은 영역까지 영향을 주기에 선교지에서 선교지 언어로(지역의 모국어) 설교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모국어로 소통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국어는 정체성, 동질감, 정서적 공감이라는 영역에 있어 우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모국어 사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인식되었다. 또한 7,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도록 격려하라’는 것도 무슬림전도에 있어 상당히 효과적이며,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에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 대상을 고려한 리더의 지혜로운 결정이 요구되었다.

Session 3은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20여 년간 성실히 사역해온 선교사가 *From seed to fruit*의 10장 “The watering of Discipling”의 내용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실제적인 사역내용을 재구성하여 발제가 이루어졌다. 우선 발제자는 이 책 1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자화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제시된 6가지 단계를 가지고 실제적 사역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중앙아시아, 말레이 인도, 아랍, 비 아랍...등)나뉘어 지역적 이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토의를 하고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효과적인 제자화의 열쇠”⁹

1. 관계형성과 모델링

- 1) 새 신자들과 가깝게 일하고 삶을 모델링한다.
- 2) 집에서, 사역현장에서, 그리고 펍박 가운데 관계와 행위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모델링하고 가르친다.

2. 문화적으로 적합한 사역

- 1)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형제를 회복하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배우는 것
- 2) 성별에 따른 존중을 갖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제자화하기

3. 회심전의 제자화

- 1) 회심 전에 제자화를 시작하는 것이 사역지역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설명된다.

4. 효과적이고 재생산이 가능한 사역들

- 1) 의사소통은 효과적이어야 하며
- 2) 현지에서 적합한 재생산되는 제자화 방법을 실천한다.

5. 제자훈련을 위한 장소와 준비

- 1) 상황과 예비제자들의 성숙도에 맞는 제자훈련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라
- 2) 효과적인 다양한 제자훈련 방법을 사용하라

6.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성 정체성”

- 1) MBB들로 하여금 다른 신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도록 격려한다.
- 2) MBB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정체감을 만들어 가도록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도록 격려한다.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원리를 발제자는 카자흐스탄의 사역과 관련지어 재구성하였으며, 선교사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오는 원리를 덧붙였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족은 국내에 800만, 중국신장성, 러시아, 우즈베크스탄, 키르기스스탄등 중앙아시아

9. IP Consultation 2012, 54.

아 200만 가량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한다. 발제자에 따르면 카자흐의 국가 지도자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민족간 화합을 강조하고 민족별 문화, 종교, 풍습, 언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사용하고 있는데, 종교문제가 언급되면 바로 무슬림으로 통일, 연합되는 특성을 지니며,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다고 전한다.¹⁰ 이곳에서 발제자는 카자흐 국내 11개 해외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장기사역자 가정들을 파송하는 일까지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제자화의 열쇠 중 관계형성과 모델링에 대하여 발제자는 초청에서 시작된 카자흐족과의 첫 관계형성과정은 나중에 첫 제자들이 소그룹 모임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자신들이 본 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했다. 선교사 자신이 초청으로 시작해 발전시킨 관계형성의 과정을 그 제자들이 종족을 제자화시키는 단계에서 같은 형식으로 모델링이 이루어진 것이다. 발제자는 “관계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 모델링이 된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 모두가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의 경우 생일, 결혼잔치 등이 집안의 대소사가 거의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교사 자신의 집에서의 관계형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소와 준비가 제자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예로 들어 현지상황과 예비제자들의 성숙도에 맞는 제자 훈련장소를 선택할 것”을 강조하였다.¹¹

이에 대해 참가자들의 토론내용을 보면 관계형성에 있어서 선교사도 전도할 대상들을 관찰하고 있지만, 그들도 선교사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교사의 무슬림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선교사 자신의 문화적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과 장소를 정함에 있어, 이슬람지역의 복음전달의 어려움 즉 선교사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보완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발제자는 무슬림사역의 경우 무슬림들의 움마 공동체를 대체할 만한 신앙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체성의 문제와 회심전의 제자화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족의 경우 특히 MBB들이 자기들의 각종 의미 있는 삶의 순간에 자기

10. Ibid., 55.

11. Ibid., 55-56.

MBB 친구들과 함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무슬림 친구들을 함께 부르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간에 확연히 구분되는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MBB들과 무슬림공동체의 차이점들이 명확해졌다고 보고한다.¹² 발제자는 예를 들어 관계와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무슬림의 장례식 이슈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무슬림공동체와 이슬람문화의 특성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동료선교사들과 이슬람연구가 그리고 선교지를 서포팅하는 지역교회대표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카자흐족의 장례는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주관하기 때문에 MBB들 장례는 다 가족, 이웃, 친구 불신자 카자흐인들이 주관해서 했었다. 당연히 성도들은 몸으로 섬기는 영역에 참여했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다가 서서히 MBB 카자흐들의 장례를 이슬람의 이맘들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 그들 스스로 불쾌해하기 시작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슬림들의 매장지에 MBB 카자흐들이 함께 묻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¹³ 매장지를 파헤치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MBB 친척, 가족, 이웃에게 이맘들이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 이슬람으로 복귀하라는 설득하는 것이라고 하는 역회심 공작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은 MBB들에게 힘든 일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MBB 들은 장례의 중요절차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임종을 지키는 섬김을 했고, 이들의 태도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예수그리스도께 위탁하는 사례도 많았고, 장례식에 참여했던 관심자들이 예수 신앙공동체에 더욱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한다.¹⁴

Session3의 발제자는 마가복음 3:13-15의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성경구절을 예로 들면서, 제자화 전략을 논의할 때 먼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함께함’의 원리라고 설명하였다. 현장에서 보면, 영적대결 또한 제자화

12. Ibid., 56.

13. Ibid.,

14. Ibid., 57.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이슈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발제자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물주는 제자화는 특히 영적 영역에서의 영적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의 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강한 진을 깨뜨려주고 무장시켜 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부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오랜 선교현장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해주면서, Session을 마쳤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할 때 첫 번째로 교회개척, 두 번째로 제자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된 적이 있었다.¹⁵ 이는 무슬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화 사역이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효과적인 무슬림 전도방법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에 세 번째 Session에 제자화 과정은 이번 모임에서 논의와 관심이 높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후의 Session은 앞선 Session 1, 2, 3에서 마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4. IP 2차 Consultation의 평가와 제언

오늘날 이슬람을 국가의 국교로 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국민의 대부분이 선택한 대표종교로 여기고 있는 나라는 약 55개국에 이른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숫자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하면, 아랍지역을 생각하는데, 아랍에는 약 2%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 아랍지역에 80%이상의 무슬림이 살아가고 있다.¹⁶ 필립젠킨스는 그의 책 *God Continent* 에서 유럽에 무슬림거주자가 늘어가면서 유럽이 이슬람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⁷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슬람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2의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세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슬람이 그만큼 여러 나라에 여러 문화 속에서 다양성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린다. 이번 제2차 IP Consultation에는 약 60여명의 선교사, 연구가, 교회대표들이

15. 한국 기독교 선교연구원, “2013년 한국선교현황 및 재정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 (2013), 3-4.

16. John L. Esposito, *The Future of Islam*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5.

17. Philip Jenkins, *God's Contin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4.

참석하였다. 또한 아랍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였다. 각자의 사역의 위치에 따라 만나는 무슬림도 그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달랐다. 튀니지아의 한 부족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번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는 근본주의적인 무슬림을 만나고 있었으며,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젊은 이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한류에 열광하는 무슬림을 만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는 커다란 지붕아래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양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모여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선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번 대회에 참석자들은 짧은 시간동안, 4개의 Session을 통해, 무슬림들의 지역적 다양성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정보를 나누고, 이슬람이라는 커다란 지붕이 가지는 통일성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전략을 나누었다. 이것이 이번 IP 2차 Consultation이 가지는 의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랜 경험을 가진 사역자들의 경험과 이론, 전략은 이제 출발선에 있는 후배사역자들에게 도전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을 말하자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위한 시간배열과, 여러 가지 주제가 아닌, 단 한가지의 주제를 선택해서, 세부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룹간의 논의를 위한 시간이 적절히 배열되지 못하였으며, 선택된 주제가 규모면에서 너무 범위가 넓은 것에 비해 세부주제들이 적절히 배열되지 못하였다. 각 Session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각각의 Session에서 세부사항들이 배열되어서 통일된 또는 정리된 담론이 유출되고 그것이 공식화되어 자료집이 된다면, 이슬람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보이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2차 Consultation에는 통일된 또는 정리된 담론이 유출되지 않았으며, 각자의 감동과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기에도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며, 더구나 유출된 의견들로 이루어진 공식화된 자료도 만들기 쉽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쉽다. 공식된 자료가 주는 의미는 이 대회의 지속성과 공식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된 담론이 유출되고 그것이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까지 한국의 이슬람선교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 한국의 이슬람선교가 이루지 못한 하나의 숙제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 통일된

담론을 담은 공식화가 이루어지고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문서로 자리잡아 한국의 이슬람선교가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